

12
2019

재외동포의



특집 _ '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각계 전문가 참여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東亞 평화 더욱 협력하기로"





K시대의 민족정체성과 지구촌 시민성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돈, 상품, 사람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외동포 750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앉은 자리에서 경계 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빨라질수록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갈망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모국, 모국어 등 모(母)를 접두어로 쓰는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그리움과 마음의 소속감을 대변합니다. 마음의 소속감과 시민적 소속감 그리고 국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의 소속감은 장기 지속적입니다.

국경을 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라 잃은 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투자처를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이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연으로 이주했건 말과 글 그리고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재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고, 다시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는 곳은 해외와 국내로 나뉘어 있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의 재구성과정은 모국에 남아있는 국민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몸은 해외에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역사를 지켜 내려고 노력하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시민적 의무와 국민 됨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 중앙아시아 동포사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김치를 담가 먹고, 이름은 현지어로 바뀌어도 조상대대로 이어오던 '성'만은 유지하고 사는 모습, 그리고 두레라는 공동체를 그대로 이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한민족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목적국으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의 수도 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발전, 그리고 민주화를 통해 열려진 자유롭고 활기찬 역동성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온 외국인들을 지구촌 보편 인권의 기준에 맞추어 환대하는 것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게 만드는 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구촌의 보편적 규범을 지켜 신뢰할 만한 민족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재외동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국의 발전과 이미지가 재외동포들의 삶의 한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더 책임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경계선의 안과 밖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우리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수록 민족적 정체성과 지구촌의 보편적 시민규범의 조화가 더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국민은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러 한 노력에 재외동포 여러분은 언제나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04



08



12



- 02 권두언 K시대의 민족정체성과 지구촌 시민성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04 특집 '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각계 전문가 참여
- 06 화제 문재인 대통령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東亞 평화 더욱 협력하기로"
- 08 기획 그 날 그 함성...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3·1 운동
- 10 글로벌 코리안 '샌디에이고 한국의 집' 건립 중인 재미동포 황정주 회장
8월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 준비로 바쁜 조술연 회장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앞장선 호주동포 박은덕 변호사
- 12 한민족 공감 1 문재인 대통령, "재외동포가 독립운동 자금 보낸 마음어 임시정부 만들어"
- 13 한민족 공감 2 해외 동포단체, 2020년 총선 투표 독려... "결집 보여주자"
- 14 한민족 공감 3 '한국 기모노'에 통곡하던 디자이너 이영희, 佛 박물관에 '이영희 한복' 기증
- 15 주목! 차세대 "디아스포라"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습니다"
- 16 동포소식 한인 최초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넬리 신 당선 축하 모임 외
- 19 동포 캘린더 재동동포 2세 경찰, 변호사 한자리에... 한·독 가교 역할 자임 외
- 20 유공동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베트남은 '제2의 고향'
- 21 지구촌 통신원 "금융위기 때보다 심해"... 홍콩시위 장기화에 동포사회도 '직격탄'
- 22 동포문학 응이
김선호 미국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대단히 중요" 외
- 25 기고문 한국어 문화권 수립을 촉구한다
우한용 소설가, 서울대 명예교수
- 26 재단공지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각계 전문가 참여

재단 발전방향,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과 내국민 인식 제고 집중 논의

‘재외동포 750만 시대’를 맞았다. 한민족 역량을 세계 곳곳에서 꽃피우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1세대에서 1.5세대, 2세대를 넘어, 지역에 따라서는 3세대와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차세대를 어떻게 육성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가 동포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또 한편으로 재외동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보기 위한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12월 5~6일 제주 본사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재외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 전·현 이사장과 실무 책임자를 비롯해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35명이 참석했다.

한우성 이사장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계획, 진도 많이 나가”

영국과 일본 대사를 역임한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개회식 축사에서 “재외동포 규모가 인구비례로 보면 세계 3위로 대단히 큰 국가 자원이지만 생각해볼 문제도 있다”면서 “국어(한글) 보급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2세, 3세에 이르러 국어를 망각하는 사례가 있다. 언어를 모르면 민족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라 교수는 동포사회에 대해 “본국의 정치적 간격(갈등)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민족 공동의식을 갖고 정치문제를 극복 초월하는 생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105권을 조사한 결과 재외동포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고 중·고교도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 헌법에도 재외동포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다”며 “헌법 제2조와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재외동포를 언급하는 문제는 다음 개헌 논의가 있을 때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제주 서귀포에 있는 동포재단 본사와 서울을 오가려면 한나절이 걸린다”며 애로를 피력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에 들어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계획에 기대를 표시했다. 한 이사장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진도가 많이 나가 있다. 서울시와 얘기가 잘되어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은 300억 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조정남 고려대 명예교수 겸 한국민족연구원 원장은 “소련과 달리 중국이 민족정책에 성공해 살아남은 이유는 진정한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민족의 개별성에 의존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며 “효과적인 대외동포 정책은 ‘현지중심주의’ 여야 하며 그 땅(이주한 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동포에 대한 정책도 다문화적인 공생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며 너무 직접적으로 ‘한국인화(化), 한국화해라’ 하는 정책은 역효과가 난다. 한국에 살면서도 이들이 개별성 독특성을 갖고 있어야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



2



최근 개봉한 쿠바 한인을 다룬 다큐 영화 '헤로니모'를 제작해 주목받고 있는 변호사 출신 재미동포 전후석 감독은 재외동포 차세대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자신을 재외동포이자 차세대라고 소개하면서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차세대 리더 대회(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두 번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인생이 바뀌는 체험을 했다. 차세대들이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내용 교과서에 포함시키더라도 재미있어야…”

‘한국교육과 재외동포’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고교 학점제 시행에 맞춰 학점 교류 확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재외동포에 관련된 교육 활동의 공약화 등을 제안했다. 교과서에 재외동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 못지않게 내용이 재미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제 발표에 이어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과 ‘내국민 인식 제고’로 나뉘 분과 토론이 있었고 다음 날인 12월 6일에는 서귀포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자료실로 장소를 옮겨 종합토론과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유현경 교수(연세대 국어국문학과)는 “제3세계 국가에서 온 유학생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한다”고 교육현장의 실상을 전하면서 “초등학교때 동포에 대한 인식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탁 한경대 교수는 “이런 자리에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같이 나와 재외동포 현안을 논의해야지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완 (사)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재외동포재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한민족공동체 구현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연간 655억 원)과 사업규모가 미약하다’고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재외동포정책연구소를 만들자”(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전 책임연구원), “외교부로 부터 독립한 동포청 설립이 필요하다”(김승력 고려인센터 ‘비르’ 대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1분과 좌장인 백영옥 명지대 명예교수는 분과토론회에서 한글교육과 관련해 정부 내 재외동포 유관기관 간에 중복 예산 낭비 지적이 있었다고 언

급했다. 백 교수는 “재외동포 문학 심사의 카테고리도 아동들도 참여하게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동포 출신 영화감독이 많은데, 그분들의 영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분과 좌장인 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 제고와 관련해 지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대응책으로 재외동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토론회에서 나왔는데 병역 문제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정리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광형 서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연구센터 자문위원장은 “재외동포에 관한 내용은 교육과정에 넣어야 하고, 인정 교과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된다. 쉽게 접근해야 한다. 재외동포가 있는 곳은 경제영토이자 문화영토이다. 교육과정에 꼭 넣어서 학교에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

1. 워크숍 이틀째인 12월 6일 제주 서귀포에 있는 재외동포재단 자료실에서 열린 종합·자유토론.
2. 제주향공우주박물관을 방문한 워크숍 참가자들. 이곳에는 대한민국의공군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월로스에 있는 비행학교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3. ‘재외동포재단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4.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 기초강연에 나선 조정남 고려대 명예교수.

문 대통령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 東亞 평화 더욱 협력하기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 발전이 한국의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6일 “한·아세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을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성명에서의 ‘보호무역 배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이번 회의에서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

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세안 내 한인 동포 지원, 보호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할 것”

문 대통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는다”며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아세안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스마



1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Nov. 25-26, 2019 Busan, Republic of Korea



2



3

트시티·금융·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토대로 지역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의장국 태국 총리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안보리결의 완전 이행해야”

문 대통령의 발표 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빠라웃 째오차 총리가 발표했다. 빠라웃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안보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빠라웃 총리는 “한·아세안 공통의 최우선 사항은 바로 한반도 상황”이라며 “아세안은 한국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관련 협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아세안은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을 통해 협조할 만한 의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한·메콩,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 실현할 것”

문 대통령은 11월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한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 명에 달하는 메콩강 유역 국가와 한국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

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모델로 삼아 메콩 국가에 공공 연구기관을 세우고 공공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과 성장산업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CT)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며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 개발 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메콩 국가에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를 세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사업’으로 메콩 농촌 지역의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농촌 공동체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돕겠다”라고도 밝혔다. [▶](#)

1. 부산 벡스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 문 대통령이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히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빠라웃 째-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슬릿 라오스 총리.
3. 문 대통령이 11월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날 그 함성...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3·1 운동

일본의 철통 같은 보도통제·조작의 ‘프레임’ 뚫고 세계로 타전



1



2

그 날의 함성은 이른바 제국(帝國)의 약육강식 논리에 갇혀 신음하던 세계인들의 혼을 흔들어 깨운 ‘죽비 소리’였다. ‘견고한 독’처럼 느껴졌던 일제의 엄혹한 보도통제와 교묘한 ‘프레임’ 조작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었다. 대한독립을 만방에 알리고 함께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자는 한민족 전체의 일치된 호소는 서서히 지구촌 전체로 타전되며 세계 곳곳 식민지 민중들을 일으켜 세우는 ‘울림’이 됐다.

3·1운동 당시 아시아 소식을 전하는 외신 특파원들의 주(主) 거점은 일본 도쿄(東京)였다. 그러나 3·1 운동이 일어난 초기 도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잠잠했다. 일차적 보도를 시작한 일본 언론이 3·1운동을 ‘단순 폭동’으로 매도한 총독부 발표를 ‘앵무새’ 처럼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 특파원들의 보도를 통제할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아사히신문 1919년 3월 3일 자에는 고종의 장례식 사진과 함께 3·1 운동 관련 소식이 처음 등장하는데, 기사 제목은 ‘야소교도(기독교도) 조선인의 폭동’이었다. 요미우리지는 3월 7일 자에서 ‘조선에 넘쳐나는 학생 소동(騷動) 중대(重大)’라는 제목으로 고종 장례식에 맞춘 학생 행진 소식을 전했지만, 그 후로는 3월 내내 3·1운동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다.

상하이서 첫 타전... ‘동병상련’ 中언론 “부끄럽다” 전폭 지지

3·1운동 관련 외신보도의 첫 물꼬를 튼 곳은 우리 독립운동의 산실과도 같은 중국 상하이(上海)였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사흘 뒤인 3월 4일 상하이 영문 대륙보에 독립운동을 위해 한국인들이 일제히 봉기했다는 소식이 실린 것이다. 이는 3·1운동이 영어 기사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첫 계기가 됐다. 이어 한국에서 온 독립운동가들로부터 ‘독립선언문’을 입수한 중국 언론은 3·1운동에 대한 동정적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국민당 기관지 민국일보는 3·1운동과 독립선언 사실 보도에 이어, 익명의 한인 여학생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독립 호소 편지 전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3·1운동 소식이 국제여론의 주 무대였던 미국에 당도한 것은 3월 10일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3·1 운동과 민족대표들이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진행한 독립선언식이 있는 지 꼭 9일 만이다.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내의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의

대한민국민회로 발송된 전보를 인용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은 파리평화회의에서 독립국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3월 1일에 주요 도시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일본의 통제로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한국의 반일 저항 운동 소식을 일제히 지면에 실은 3월 10일 자 미국 신문의 3·1운동 보도는 확인된 것만 33건에 달한다. 3·1 운동에 대한 현지 언론의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UPI 통신의 전신인 유니타이드 프레스(United Press), ‘A.P. 나이트와 이어’ 등 뉴스통신 기사를 인용한 당시 신문들은 3·1운동의 실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지면에 반영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한국의 독립선언서를 처음 보도했다. 또 오클랜드 트리뷴은 ‘한국이 전 세계에 독립 지지를 요청했다’,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는 ‘3월 1일 일본의 한국 지배 종료 선포’, 호놀룰루 스타-볼리틴은 ‘한국인들이 독립을 외친다’ 등의 헤드라인을 뽑았다. 지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일본이 3·1운동 소식의 외부 전파를 막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감시와 경계를 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식민통치 지켜봤던 미국인 판사 “3·1운동 발생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산타아나 레지스터는 “일본의 무선, 전신 통제 때문에 (독립) 선언 소식의 발이 묶였다”는 대한민국민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기사에 반영했다. 엄혹한 식민통치를 직접 지켜본 미국인 판사는 3·1 운동 발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만큼 일제의 통제가 극심했다는 뜻이리라.

호놀룰루 스타-볼리틴은 3월 11일 자 지면에 한국에서 7주간 적십자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존 A. 매슈먼 판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 가본 사람으로서 일본이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시도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 이유로 한국인들이 독립선언을 했다는 상하이발 기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상하이발 전보 한 통으로 한국의 독립 선언과 반일 시위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3·1운동이 미국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럽으로 보도가 이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월 19일 자에 고종 황제 장례식날 불이 붙은 전국적인 독립운동 소식을 상하이발로 전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 보도를 막고 있으며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내용을 각각 도쿄와 오사카발로 전했다. 다만,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에서는 3·1운동 보도가 단순 사실을 전하는 수준에 그쳤다.

독일(도이체 알레마이네 차이퐁), 프랑스(뤼마니테) 이탈리아(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그 밖의 유럽국가 언론도 3·1운동 관련 소식을 사실 보도 중심으로 전했고, 러시아의 대표언론인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야도 3·1운동을 통한 한국의 독립운동에 주목했다. 이어 중남미의 브라질(에스타두)과 멕시코(엘 푸에블로),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언론의 지면에도 3·1운동 관련 소식이 실렸다. [창](#)



3



4



5

- 3·1 운동과 독립선언 소식은 일본의 조직적인 조작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사진은 1919년 3월 이후 독립선언과 3·1 운동을 보도한 전 세계 신문 지면을 합성한 것이다.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919년 4월 12일 자에서 “일본군이 대학살을 개시했다”며 서울에서 3시간 만에 1천 명이 학살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오른쪽은 총 1만여 명이 대학살을 당했다는 다른 내용의 기사. (출처: USC Korean American Digital Archive)
- 1919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창간된 월간지 헤이차오(黑潮), 프랭크 윌리엄 스킵필드 박사가 촬영해 널리 알려진 당시 서울 3·1 운동 사진을 게재하면서 “조선은 망했고, 독립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계해야겠는가”라고 적었다. (상하이도서관 근대문헌자료 DB)
- 일본 아사히 신문 도쿄판 1919년 3월 7일 자는 ‘조선 각지의 폭동’이란 제하 기사로 3·1 만세운동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아사히는 이 기사에서 “주모자는 천도교도와 기독교도”라며 진남포에선 구금된 사람을 빼내기 위해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다고 썼다. (아사히신문 제공)
- 1919년 3월 9일 중국 국민당 기관지인 민국일보(民國日報)에 실린 3·1운동 관련기사. 민국일보는 이날 ‘조선의 혁명운동’, ‘조선인의 독립선언’ 제하 기사를 통해 3·1운동 소식을 처음 전했다. 이후에도 3·1운동 발생 및 경과에 대해 끈질기게 보도를 이어갔다. (상하이도서관 민국일보 영인본)



‘샌디에이고 한국의 집’
건립 중인 재미동포
황정주 회장

“2010년 10월 美 최대 도시공원에 홍보관 ‘한국의 집’ 개관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공원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발보아 파크에 2020년 10월, ‘한국의 집’ (House of Korea)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비영리단체 ‘샌디에이고 한국의 집’ 황정주(59) 회장은 11월 14일 “지난 6월 한국의 집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8월 말 지상 1층(전시관), 지하 1층의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이후 10월 문을 열게 될 한국의 집 전시 공간은 20개 국가관 규모와 같은 53㎡로 그리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연간 1천500만 명이 방문하는 발보아 파크에 ‘한국의 집’을 만들기 위해 2013년 단체를 설립해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펼쳤다.

황 회장은 “한국의 집 전시 공간이 좁아서 벽면을 디지털 콘텐츠로 채울 생각”이라며 “전시물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미국·세계사를 비교하는 연대기를 비롯해 한국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공간을 표방하는 방향으로 꾸미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방문객들이 그냥 보고 가는 전시관이 아닌,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주변에서는 ‘한국의 집’이 문을 열면 한국 음식 요리 강습, 한국어 교실 운영, K팝 댄스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력이 된다면 실천에 옮길 생각입니다.”

‘한국의 집’이 문을 열면 황 회장이 2013년 건립을 추진한 지 7년 만에 결실을 보는 것이다. 그는 공원 내 한국관이 없는 것을 알고 비정부 국제기구인 인터내셔널 카티지를 찾아가 건립 방법 등을 논의했고, 뜻을 모은 지인들과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의 지원과 한인사회의 25만 달러 모금 등에 힘입어 건축비 50만 달러를 마련하는 결실을 이뤄냈다. 황 회장은 “언제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만으로 ‘한국의 집’을 운영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재미동포 과학자, 조만간 과학 노벨상 탈 것으로 기대”

“1971년 설립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는 70여 개 지부에 3만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요. 멀지 않은 장래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임기를 시작할 조술연(51) KSEA 차기 회장은 11월 28일 “한인이 과학기술, 물리, 의학 등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을 때가 됐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건축과 부교수인 그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들 대부분은 70대를 넘은 고령층”이라며, “그렇지만 한국 대학에서 이들 연구 분야는 70대 이상의 학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미한인 과학기술계와는 달리 국내 과학계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끝까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밀어줘야 하고, 교수의 65세 정년제도도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과학자와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4월 치러진 KSEA 선거에서 제49대 회장에 당선됐다. 새해 8월 12~15일 캘리포니아 주 하야시 리전시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린 '2020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 (UKC 2020)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UKC 2020 주제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의 융합'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인간 본연의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에 필연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과 융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는 "KSEA가 미국 한인 과학자를 대표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특히 인문사회 과학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인들과 연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싸우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여전히 침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세계인들과 연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올해 8월 14일 호주 시드니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기림의 날' 연대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호주동포 1.5세 박은덕(57) 변호사의 결의에 찬 외침이다. 박 변호사는 2016년 시드니 에쉬필드 연합교회 앞마당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둔 것은 고인이 된 장점돌 할머니의 호주 강연을 듣고부터다. 간헐적으로 듣고 피상적으로 알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계 호주인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온 갖 고초를 겪은 안 루프-오헤르너(1923~2019) 할머니를 위해 활동하는 호주동포 송애나 씨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호주 친구들'을 결성해 대표를 맡았다.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호주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일본 정부의 전방위 로비에 무너지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호주에서 일본과 싸움은 다시 시작했다. 2015년 '평화의 소녀상' 시드니 설치를 놓고 벌여졌다. '노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빌 크루 목사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의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2016년 8월 9일 마침내 소녀상을 세웠다.

박 변호사는 중학교 3학년 때인 1977년 가족과 함께 호주에 이민했다. 성차별을 인지하기도 전 인종차별을 먼저 경험하며 청소년기를 미국땅에서 시작했다. 1987년 호주 한 인복지회에서 한인 이민자를 위해 사회복지사로 2년간 일했고, 호주한인여성모임을 결성해 주도적인 활동을 한 바 있다. 2007년부터 2년간 한인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호주 국회가 안 할머니 기일인 8월 19일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날'로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일본군 수용소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 '데일리 브레드'(Daily Bread)를 제작한 안 할머니의 손녀가 다시 장편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에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해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



8월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
준비로 바쁜 조술연 회장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앞장선 호주동포
박은덕 변호사



문 대통령, “재외동포가 독립운동 자금 보낸 마음이 임시정부 만들어”

3·1운동 100주년 추진위 격려 오찬...독립유공자 후손 청와대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3일 대통령 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백주년위원회) 위원과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사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오찬에는 임시정부 요인 김가진 선생의 손자인 김자동 임정 기념사업회장, 임시정부 외무총장과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친손녀 김수옥 김규식연구회 부회장, 무장 항일운동을 한 김경천 장군의 손녀 김올가 여사 등 독립유공자 후손도 참석했다. 한완상 백주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3·1 운동은 약속 강식의 세계에서 감동적 울림을 준 비폭력·평화운동”이라며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참여로 3·1 운동의 평화정신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3·1 독립선언서, 2·8 독립선언서 등 ‘독립선언서 5종 세트’를 증정했다. 김자동 회장의 딸 김선현 백주년위원회 위원은 “모든 독립운동가가 꿈꿨던 통일된 나라, 복지국가, 문화국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한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찬을 준비했다”면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가치를 지속해서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찬에서는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100주년과 여성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만주와 미국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전하는 등 주요 활동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심 소장은 1천 580건의 여성독립운동가 유물이 확인됐다면서 이들을 보관할 여성독립운동 박물관의 건립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편 못지않게 활발히 활동했으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다양한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전시회 등을 위한 박물관 건립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문 대통령이 12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레고 브릭으로 만든 백범 김구 선생 모자이크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대비 해외에 이주한 국민이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다음은 우리이다”라는 “사하라 사막부터 안데스 산맥까지 없는 곳이 없어서, 분포된 나라 숫자로는 우리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역만리에서 힘들게 일한 대가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 그 마음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를 탄생시켰다”며 “우리 독립운동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 역사를 너무 몰랐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국민에게 그 역사를 알게 해주신 위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부도 그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영빈관에는 3·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 전시됐다. 1층에서는 ‘쉽고 빠르게 읽는 독립선언서’를 점자로 번역해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게 한 ‘독립선언서 점자본’과 외국인도 독립운동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키르기스스탄어로 쓰인 독립선언서 번역본이 선보였다. [\[장\]](#)

해외 동포단체, 2020년 총선 투표 독려... “결집 보여주자”

온·오프라인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마쳐야

2020년 4월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이 11월 17일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국 동포단체들이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독려 캠페인에 나섰다.

아시아 지역 22개국 한인회를 대표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아시아총연·회장 심상만)는 11월 23일부터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독려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시아총연은 “각국 재외동포 750만 명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경제 규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그만큼 재외동포의 위상과 입지가 커졌고 이에 따른 고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를 대변하고 의견을 제대로 내려면 재외국민이 결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독려했다.

오타와, 에드먼턴, 밴쿠버, 토론토, 해밀턴 등 26개 지역 한인회를 대표하는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회장 주점식)도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심상만 회장과 주점식 회장은 2020년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 의장이기도 하다. 이들은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것은 정부 정책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1일~6일 진행될 재외투표 때까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26개 한인 단체도 11월 19일 LA 한인회관에서 ‘재외국민유권자등록참여본부’를 발족시켰다. 본부는 LA 한인회에 뒀다. 이 본부는 12월 초 LA 한인타운 마켓 등지에서 재외선거 홍보와 참여 독려 캠페인에 들어갔고, 온라인 유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처 모습.(사진·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권자 등록 등을 도울 계획이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재외동포의 지위를 향상하는 길”이라며 “미국에 있는 유권자가 투표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재외 유권자는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 23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19세 이상의 유학생, 상사 주재원, 여행자 등이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을 말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려면 2020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위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하거나 각국 공관을 직접 방문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영구명부제에 따라 상시 등록이 가능하지만 2회 이상 계속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내(4월 15일) 보다 앞선 2020년 4월 1일~6일 실시된다. **정**

‘한국 기모노’에 통곡하던 디자이너 이영희, 佛 박물관에 ‘이영희 한복’ 기증

박물관 측, 한복 아름다움 소개해온 故人 작품에 관심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려온 디자이너 고(故) 이영희(1936~2018) 선생이 남긴 한복 작품 수백여 점이 프랑스 국립동양예술박물관(기메박물관)에 기증됐다. 파리의 기메박물관은 12월 4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이영희의 꿈-바람과 꿈의 옷감’이라는 이름의 특별 기증전을 마련한다. 이번 전시에는 1993년 파리의 패션쇼에서 발표한 이영희의 ‘바람의 옷-한복’ 등 고인이 평생 디자인한 한복과 조각보 등 300여 점이 전시된다.

고인은 1993년부터 13년간 파리 프레타 포르테(고급 기성복), 오토 쿠티르(고급 맞춤복) 컬렉션에 꾸준히 참가하며 세계의 패션 무대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해왔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기메박물관은 이영희의 작품에 관심을 가졌고 유족 측에 기증을 요청해, 이번에 이영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한다. 기메박물관 측과 이영희 측의 중간에서는 프랑스의 한·불교류단체인 다리재단이 다리를 댔다. 이 재단의 장병상 플라세(한국명 권오복) 대표는 한국 입양인 출신으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시 국가개혁 담당 장관을 지낸 프랑스의 전직 상원의원이다. 이영희의 이번 기증전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그의 생전의 꿈을 드높이는 데에 주안을 두었다.

국내 디자이너로서는 처음으로 19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를 누비던 이영희는 우리 옷을 알리겠다는 열망으로 뚝뚝 뭉쳐있었다고 그의 지인들은 회고한다. 패션칼럼니스트 심우찬은 이영희의 별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패션지가 선생님 옷을 ‘기모노 코레’(한국 기모노)로 표기하자 ‘내가 뭐 때문에 파

리에서 패션쇼를 하는데...’라면서 통곡하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증전에서는 모시와 마의 거친 결을 살린 한복들과, 천연염색과 붓 염색으로 독창적인 한복의 색채를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전시된다. 기메박물관의 소피 마카리우 이사장은 12월 2일 저녁 전시 개막식에 이영희가 디자인한 한복을 직접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나이 마흔에 본격적으로 한복 디자인의 세계에 들어선 뒤 한국의 대표 한복 디자이너 자리에 오른 이영희는 2018년 5월 17일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정부는 한복 디자인과 해외 활동, 후학 양성을 통해 한복의 현대화와 세계적 확산 등 한복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10월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



▲ 12월 2일 프랑스 국립동양예술박물관인 파리 기메박물관에 전시된 이영희의 기증 작품들을 프랑스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매종드이영희 제공)



◀ 생전의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왼쪽)가 패션쇼 무대에 선 모습.

“‘디아스포라’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습니다”

쿠바 한인 다큐 영화 ‘헤로니모’ 제작한 재미동포 전후석 감독

“**감**동과 여운…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였습니다.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무명의 멕시코, 쿠바 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쿠바의 한인 2세로 태어나 정부 고위직에 올랐고, 한인사회 형성에 기여한 임은조(쿠바 이름 헤로니모 임) 선생의 삶을 조명한 다큐 영화 ‘헤로니모’를 보고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 내용이다. 네티즌 평점은 다음이 10점 만점에 9.9점, 네이버는 9.62점이다.

헤로니모를 제작 감독한 사람은 재미동포 전후석(35·미국명 조셉 전) 씨이다.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우연히 쿠바에 여행을 갔다가 운명처럼 헤로니모의 딸을 만났다. 그리고 헤로니모의 파란만장한 삶을 알게 됐다. 그의 일생을 영상 스토리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3년간 미친 듯이 제작에 매달렸다.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500명이 넘는 후원자로부터 16만 달러를 모아 제작비로 충당했다. 개봉 27일째인 12월 18일 기준 관람객 숫자는 1만1,673명이다. 투자비용을 건지려면 적어도 10만 명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전 감독은 헤로니모가 국내에 상영되고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으로도 만족한다는 표정이다. 무엇보다 헤로니모를 통해 그토록 고민했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데에 무게를 둔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는 재외동포를 의미한다. 재외동포의 삶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은조 선생은 100% 쿠바인이면서 동시에 100% 한국인이었다고 전 감독은 말한다.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유지 방안에 대해 “철저하게 현지화되는 동시에 소수민족으로서 한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고 얘기한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했듯이 한반도를 떠났던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통일 한반도와 평



12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서 개최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는 전후석 감독.

화를 가져오는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얘기는 이어진다. “유대인 랍비가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면서 디아스포라 뿌리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혁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어느 곳에 디아스포라가 퍼지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서 새로운 동력과 문화를 창조할 힘이 있습니다.”

전 감독은 미국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한국에 와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고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17년째 살아왔다. 그는 미국에 다시 갔을 때 철저하게 미국인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동포 2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LA 폭동사건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한인들이 ‘한인 이민자’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배웠다. 이어 헤로니모와의 만남을 통해 디아스포라 의미를 깨우치게 됐다. 향후 계획에 대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유럽의 동포사회, 모스크바 고려인들로부터 헤로니모를 상영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2~3개월은 각국 동포사회를 돌아다니며 영화를 상영하고, 헤로니모와 디아스포라에 대해 글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장]**

한인 최초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넬리 신 당선 축하 모임

신 의원 “한인의 긍지를 갖고 한인사회와 캐나다 위해 봉사”



한인 최초로 캐나다 연방 하원에 진출한 넬리 신(왼쪽 세 번째) 의원이 당선 축하연에서 신맹호(가운데) 대사, 연아 마틴(오른쪽 세 번째) 상원 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캐나다 대사관 제공)

10월 캐나다 총선에서 한인 최초로 연방 하원에 진출한 넬리 신(47·한국명 신윤주) 의원의 당선 축하연이 주캐나다 한국대사관(대사 신맹호)에서 열렸다. 대사관은 11월 26일 오후와 대사관에서 신 의원의 당선과 임기 공식 개시를 축하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한인 최초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의원과 한인회 인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신 대사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축하 서한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고 “캐나다 역사상 한인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 의원과 마틴 의원을 본보기로 삼아 앞으로 더 많은 한인이 정계에 진출해 지역사회 발전과 동포들의 권익 신장,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한인의 뿌리와 긍지를 갖고 한인사회와 캐나다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양국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 차세대들이 정직, 성실, 비전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캐나다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아 마틴 의원은 “넬리 신 의원의 당선을 통해 캐나다 한인사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며 “신 의원이 역량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무궁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대사관은 캐나다 한인 사회 지원과 한·캐나다 양국 관계 확대를 위해 신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美 다솜한국학교, 딱지놀이로 배우는 역사문화 교재 발간

최 교장 “동포 학생들, 한스타일 배우고 알릴 역량 키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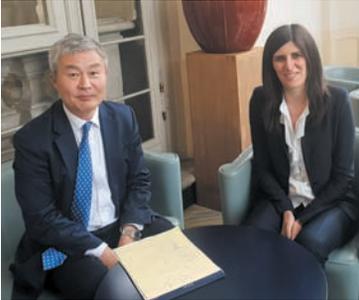
다솜한국학교가 펴낸 ‘한스타일 딱지로 배우는 한국문화’ 출판 기념회.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 역사·문화 교재를 2016년부터 매년 출판해오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가 올해는 ‘한스타일 딱지로 배우는 한국문화’를 12월 24일 출간하고 출판기념식을 했다. 이 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지난해 공립중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한식, 한복, 한옥 등 ‘한(韓)스타일’을 소개하는 내용을 자세히 신자, 이를 보충할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책을 펴냈다.

최미영 교장은 “재외동포 1.5~2세들이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 6가지 ‘한스타일’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360쪽 분량의 교재는 한스타일 주제에 따라 학습 목표와 내용, 강의 계획안과 동영상 목록 등을 포함하는 교수·학습 계획안, 유치·초급·중급·고급으로 구성된 학생용 학습지 등으로 구성됐다. 부록으로는 학습지 답안과 단어 목록이 한글과 영어로 붙어 있으며, 다솜한국학교가 학습한 활동 내용과 사진도 첨부했다. 학습 뒤 딱지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요 단어를 학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한스타일 딱지’도 자체 개발했다. 출판기념식에서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한 재외동포재단을 대표하여 참석한 LA총영사관 이종미 영사는 “놀이 학습을 접목하여 아이들 눈높이를 맞춘 것은 ‘신의 한 수’이다”라고 말했다. 학교는 웹사이트(www.dasomks.org)에 교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올려놨다.

주이탈리아대사관, 한인사회 발전 토론회 개최

동포 한인들의 애로 사항 공유하고 개선책 모색하고자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가 지난 5월 20일 토리노에서 키아라 아펜디노 토리노 시장을 만나 산업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이탈리아 대사관(권희석 대사)은 최근 로마 시내 한 호텔에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행사는 한인회장, 경제인협회장 등과 함께 관광가이드·음악인·미술인 등의 직종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는 한인들이 사업 또는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각종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대사관 측은 여러 방면에서 한인사회가 겪는 문제점을 경청하고서, 관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일 한인회장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포사회 발전을 논의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사관은 이와 같은 토론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연간 2회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대사는 “한인사회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사관이 어떤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일하다 올해 5월 주이탈리아 대사로 부임했다.

재일동포 상인들, 도쿄올림픽 성공기원 종이학 2천20마리 접었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있는 신주쿠 구청에 전달



오영석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오른쪽)이 12월 3일 요시즈미 겐이치 도쿄 신주쿠 구청장을 예방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오륜기 색깔의 종이학 2천20마리와 태풍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도쿄 신주쿠(新宿) 지역의 한인 상인들이 종이학 2천20마리를 접어 구청에 전달했다. 이 종이학에는 한·일 우호 관계를 염원하고 내년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재일동포 상인들의 정성이 담겼다. 오영석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은 12월 3일 요시즈미 겐이치 신주쿠 구청장을 예방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의미하는 오륜기 색깔의 종이학 2천20마리를 건넸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주쿠는 2020년 7월 시작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주 경기장(국립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산재한 곳이다. 한인 상인들은 이 점에 착안해 11월 16일 신주쿠 니시오쿠보(西大久保) 공원에서 개최한 제3회 '신주쿠 한·일우호 자선행사'(다문화 한마당 축제)에서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종이학 접기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이 접은 종이학이 이날 신주쿠 구청에 전달된 것이다.

오 회장은 “신주쿠는 버무려 담그는 한국의 김치처럼 다문화가 어울리는 곳”이라며 한인 상인들의 정성이 담긴 종이학이 한·일 우호 관계의 상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요시즈미 구청장은 “한인 여러분들의 활동과 아이디어가 놀라울 따름”이라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종이학을 두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인 상인들은 10월 일본을 강타했던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피해 지역 복구 성금으로 11월 자선행사 때 모은 수익금 중 일부인 30만 엔을 이날 요시즈미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히로시마 방문한 교황, 재일동포 피폭자 박남주 씨 만나

박 씨, 일본인 상대로 원폭 피해 참상 증언하는 활동 벌여와



재일한국인 피폭자 박남주 씨.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시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14일 재일 한국인 피폭자를 만나는 등 일본 외 타국 피폭자를 함께 배려했다. 교황은 전날 히로시마 시 소재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평화 기원 행사에 참가한 재일 한국인 피폭자 박남주(87) 씨와 악수하고 대화를 나눴다. 박 씨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교황과 악수했으며 “전후의 가난한 생활에도 긍정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교황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폭 당시 열세 살이던 박 씨는 원폭이 폭발한 중심 지점인 ‘폭심지’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에서 전차를 타고 있다가 피폭당했다.

유리 파편에 머리를 다친 채 불길에 휩싸인 전차에서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피폭 후유증과 가난, 차별 등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20세 무렵에 가톨릭 신자인 남편과 결혼했고 히로시마에서 세례를 받았다. 박 씨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머물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한국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단체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인을 상대로 피폭의 참상을 증언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한편 한국 가톨릭 교계는 교황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교황청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에게 원폭으로 인한 제일조적인 피해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상원, 5월 4일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 결의안 가결

연방 상원 만장일치 통과... 하원 연내 통과 기대



2018년 멕시코 메리다 시에서 열린 ‘한국의 날’ 제정 기념 거리행진. (사진·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제공)

멕시코 연방 상원이 매년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멕시코 상원은 12월 3일 한국과 멕시코 간의 우호를 기리기 위해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출석 의원 103명이 모두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에 손을 들었다. 결의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멕시코에서는 매년 5월 4일 한인 이민을 기념하게 된다.

멕시코 상원은 “양국 관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인이 멕시코에 이민 온 지 114년, 양국이 수교한 지 57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으로도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멕시코에 전 세계 6위 규모의 교역 파트너이며,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수출국이라고 덧붙였다. 5월 4일은 1905년 멕시코에 1세대 한인 이민들이 처음 도착한 날이다. 앞서 올해 메리다 시와 캄페체 시, 유카탄 주가 지방 의회 차원에서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 바 있다.

김상일 주멕시코 대사는 “한·멕시코 친선협회 의원 등을 통해 한국의 날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연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한인 이민자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멕시코에서 ‘5월 4일’이 한국의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행사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독동포 2세 경찰, 변호사 한자리에... 한·독 가교 역할 자임

독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총영사 금창복)은 12월 6일 경찰과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동포 2세 및 독일 입양인단체(KAO)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동포 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위한 동포 2세의 역할, 입양인들과 동포사회와의 교류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과 독일 간 친선·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에 유학생들까지 참여한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美 델러스 코리안 페스티벌에 12만 인파... 어가행렬엔 시장부부도

11월 16일 미국 텍사스 주 델러스에서 펼쳐진 코리안 페스티벌에 1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델러스 권역인 캐롤튼 아시안타운센터에서 열린 이 페스티벌은 매년 관람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미국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궁중 어가행렬(사진)에는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 주최자인 캐롤튼 시장 부부가 왕과 왕비 역할을 맡아 행렬에 동참했다. 행렬에는 초대형 태극기와 꽃가마가 등장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재일대한민국부인회, 장애인체육회에 5천만 원 후원

재일대한민국부인회가 2020년 도쿄 하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2월 10일 “재일대한민국부인회가 직접 모금한 거액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재일대한민국부인회 박선악 회장(사진 오른쪽)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에서 장애인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감동했다”며 “도쿄패럴림픽에서도 선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탄불총영사관, 한국전 참전용사에 위문품 전달

터키 이스탄불한국총영사관은 12월 3일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을 초청해, TV와 전동휠체어, 담요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코자엘리 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발림 후세인 악소가 코자엘리 주지사와 박용덕 한인회장, 윤대우 한국전참전용사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참전용사 21명과 가족 등이 참석했다. 터키는 한국전 당시 2만1천212명을 파병했으며, 현재까지 생존한 참전용사는 1천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미동포들 “캘리포니아 이어 뉴욕 주도 ‘한글날’ 제정하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이어 뉴욕 주에서도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기 위한 모임이 출범했다. 뉴욕 지역 한인들은 11월 23일 ‘뉴욕 주 의회 한글날 제정 추진위원회’(사진)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뉴욕한인회 찰스 윤 회장, 미주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김혜성 회장을 추진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진위는 2020년 6월까지 뉴욕 주 의회에서 한글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뉴질랜드 더니든 한인회, 24년째 한국전 참전용사에 보은 행사

뉴질랜드 남섬의 제2 도시인 더니든 한인회(회장 차경일)는 12월 8일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열었다. 한인회는 이날 더니든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식당으로 초청해 현지 전통 음식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한국에서 구매한 옷을 선물했다. 더니든 한인회는 1995년 창립 때부터 매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위로와 함께 정을 나누는 행사를 열고 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 베트남은 '제2의 고향'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청년 인재 키우는 데 힘써

12월 9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생전 “베트남이 제2의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껴진다”고 지인들에게 늘 말해왔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이 1986년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려고 ‘도이머이(새롭게 바꾼다는 뜻)’ 정책을 채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김 전 회장은 베트남에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민 해외 대기업 총수였다. 덕분에 김 전 회장은 현지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최고위층과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대우그룹 사태로 1999년 10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5년 6월 귀국할 때까지 상당 기간을 베트남에 체류했고, 당시 베트남 정부가 인터폴에 수배된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된 그가 해외로 나갔다가 지난해 하반기 건강악화로 다시 귀국할 때까지 주로 머문 곳도 막내아들 소유의 베트남 하노이 번지 골프장에 있는 임시 숙소였다. 베트남 거주 한인 동포와 다를 바 없었다.

2009년 전직 대우인들이 대우세계경영연구회를 결성하고 대우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GYBM’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 글로벌 청년 사업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자 베트남을 첫 대상으로 꼽았다. 김 전 회장은 “앞으로 베트남이 가장 빨리 성장할 것”이라며 “이곳에서 GYBM을 가장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지인들이 전했다.



베트남 'GYBM' 3기 수료식에 참석한 생전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GYBM은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교육하고 해당 국가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중급 이상의 어학 능력을 갖춰 현지 기업에서 경험과 실력을 쌓아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김우중 사관학교’로 불린다. 2011년 베트남에서 1기 40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베트남과 미얀마, 인도네시아에서 1천여 명을 배출했다. 올해도 150명을 선발해 지난 7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들이 해외에서 창업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나라에서 수출을 늘리고, (기업체의) 지점이 생겨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가 죽을 때까지

GYBM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이 프로그램에 강한 애착을 보인 김 전회장은 지난해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증보판을 내면서 받은 인세를 GYBM 사업에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회장은 또 GYBM 사업에 이어 은퇴자의 베트남 현지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다.

베트남 하노이한인회(회장 윤상호)는 12월 1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을 애도했다. 하노이한인회는 “고인은 한국과 수교하기 전부터 베트남 정부의 개혁과 개방에 이바지했고, 그 결과 현재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터전을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우맨들은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베트남 현지인들도 조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생전에 베트남에 있을 때 머물렀던 번지 골프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

“금융위기 때보다 심해”... 홍콩시위 장기화에 동포사회도 ‘직격탄’

韓 관광객 끊긴 여행업계 · 손님 급감한 요식업계 ‘최악’ 상황

홍콩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홍콩 내 동포사회도 그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행업, 요식업, 유통업 종사자 들은 버티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11월 21일 홍콩 정부 통계에 따르면 6월 초부터 시작한 홍콩시위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3.2%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홍콩 경제의 어려움은 한인사회도 피해 가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여행사들은 시위 사태 장기화 속에서 ‘최악’이라고 할만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한 후 홍콩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갈수록 뜸해지더니 이제는 시위 사태 전보다 90% 넘게 줄어 관련 업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한 여행사 사장은 “시위 사태 이전에 한 달에 300팀 정도의 단체관광객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30팀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해 적자를 메우는 사장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 여행사 가이드는 “단체관광팀의 숫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데, 단체관광객이 거의 없다 보니 집에 생활비도 못 가져다주는 처지까지 내몰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여행사 사장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았다”며



11월 14일 홍콩의 금융 중심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사태가 반년째 이어지다 보니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와 함께 요식업계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즈웨이베이의 한 한국 음식점 사장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손님이 짝 들어차야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충당하고 손에 쥐는 수익이 있는데, 시위 사태가 이어지면서 저녁에 손님이 절반도 안 차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매출 수준으로는 건물주한테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시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벌써 여러 달째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어 이리다가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술집 등이 많은 침사추이, 코즈웨이베이 등에서는 이미 여러 식당이나 술집이 문을 닫았다.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식자재나

판매할 물품 등을 공급하는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홍콩한인회(회장 김운영)는 여행업계 가이드와 한국 식품·소비재 유통업계 종사자 등이 극심한 어려움에 부딪침에 따라 이들의 자녀가 홍콩 한국국제학교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말연시에 송년회나 신년회 등을 가능하면 한국 음식점에서 해 요식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홍보 운동도 펼칠 방침이다.

한 여행사 사장은 “뉴스에서 최루탄, 화염병 등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 홍콩 관광에 지나친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극히 일부 시위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관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창**

안승섭 연합뉴스 홍콩 특파원

옹이

김선호(미국)

장작더미 속 깊이 잠들어 있는 노숙자와 마주쳤다.
태풍의 눈매로 최선의 침묵을 품은, 그러나 내려찍으면 금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활활 광기를 드러낼 듯, 옹이 박힌,
슬그머니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는다.
아마도 수많은 푸른 입들로 엮은 얼룩의 말을 타고 평원을 가르며
한평생을 달려 마침내 도달한 내생의 일기 일거다.
첩첩하고 딱딱한 고립의 껍질을 벗어나 불새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며
푸른 새벽의 입김으로 일어나던 자리,
한 번의 수직으로 횡을 긋고
잠시 나의 척추를 접어 탁자에 앉히는
이 우주의 진동은
지난겨울과 여름의 틈으로 그가 써 놓은 바람의 밑줄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거나
산의 동맥을 접속시키던 싹뿔 자국이거나
중력으로 부서져 내리다 등 굽은 빛의 조각이거나
저 망망대해에서 내 안으로 견인되던 폐선의 표류 목이거나
하여,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계절을 만나 잠시 기거하던 이방인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며
이제 깊이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자세에 이르렀다. 



바른 말 고운 말

차를 여러 번 우려먹다

흔히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달래거나 위협해서 제 이익을 챙기거나 무엇인가를 억지로 얻어 내는 것을 '울귀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울귀내다'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표준어 형태로는 '우려내다, 우려먹다'가 쓰입니다. 따라서 '돈을 울귀내다'가 아니라 '우려내다, 우려먹다'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물건을 물에 담가서 그것의 성분이나 맛을 풀어서 낸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차는 여러 번 우려먹어도 맛과 향이 좋군요." "물 속에 담가 두었다가 쓴 맛을 우려내야 해요." 또 "그 친구는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우려먹는지 모르겠군"과 같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재탕, 삼탕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울귀내다'나 '울귀먹다'는 비표준어이므로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다, 우려내다, 우려먹다'로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굴비 한 두름은 스무 마리

물건을 세는 단위에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을 한 손에 잡는 정도의 수량이라고 해서 '한 손'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물건 두 개를 한 단위로 세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생선이나 통배추 같은 것은 크고 작은 것 두 개씩을 '한 손'이라고 하고, 또 미나리나 파 같은 것은 한 줌씩을 '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뜻이 축소되어 생선 두마리를 세는 단위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한 손'이라고 하면 '고등어 두 마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름'이라는 단위도 있는데, 이것은 물고기나 나물을 쥌 따위로 길게 엮은 것을 말합니다. 먼저 물고기의 경우를 보면, '굴비 한 두름'이라고 하면 굴비를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스무 마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산나물의 경우에는 '한 두름'하면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숨'이라는 말은 한 줌 안에 드는 가늘고 긴 물건의 수량을 뜻하는 말로, '고사리 한 모숨'이라고 하면 '열 줌 정도로 엮은 고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오른쪽 방향 열쇠

1.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恒星).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의존한다.
2. 전 프로 골프 선수. LPGA 대회에서 총 8번 우승했다. 별명은 '슈퍼명공'
4. 기원전 2세기경부터 494년까지 북만주지역에 존속했던 예맥족의 국가. 설날에 추수를 감사하여 '영고'라는 의식을 행했다
6. 군 장성 계급 중 하나로 준장과 중장 사이에 있다.
7. 쟁송(爭訟)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그 재판관이 내리는 판단
9. 동양화에서 자연의 풍경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
12. 매화로 담근 술
14. 호는 서포(西浦). 조선 후기 문신이며 소설가. '구운몽', '사씨남정기'가 유명하다
15.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신여섯째 해이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이다.
16. 경기가 좋지 못함
17. 아이를 재울 때 불러주는 노래
18. 동물의 목둘레를 매듭으로 죄는 장치
20. 그 날에 있었던 일을 글로 기록한 것
22. 국을 떠먹은 조리 기구
24. 모시풀의 줄기 껍질로 만든 실로 짠 피륙. 습기의 흡수와 발산이 빠르면 빛깔이 희어 여름철 옷감으로 애용된다
25. 소리를 내지 않고 곱게 웃는 모습
26. 여름에 자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는다. 열매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처음에는 달콤하나 나중에는 쓴맛을 낸다.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여겨진다

27. 해상교통의 안전과 선박 운항의 능률 증진을 위해 해안이나 섬에 설치한 구조물

▶ 아래쪽 방향 열쇠

1.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의 아버지라고 전하는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 경상북도 봉화군 사이에 있는 산
2. 늦가을에 한꺼번에 많이 담근 통배추 김치·깍두기·동치미 등의 총칭 또는 그것을 담그는 일
3. 직접 느낄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을 이르는 말로, 지나간 과거,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와 함께 일상에서 쓰인다
5. 용이 물고 있는 구슬
6. 음식물에 들어 있는 영양소를 몸에 흡수하기 쉽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
8.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내 중학교에서 학생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 각 과목별 성적을 다섯 개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11. 국보 제32호.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부처의 힘으로 몽골 군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대장경
13. 불이 났을 때 경음을 내어 알려주는 장치
18. 아간에 움직이는 습성이 있어 관찰하기 힘든 조류. 부엉이와 유사하나 귀 것이 없어 쉽게 구분된다
19. 수도는 워싱턴이며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있는 나라
20. 날짜와 시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21. 고추장, 된장, 간장 향아리 등을 올려놓는 대
23. 자신을 구제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
24. 머리에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 2019년 11월호 정답

조언유공재담	국어사전수학능력	일회성차차추복	탄로고향	개천절진전망대	비행기	주먹구구우편번호	전통니제역사
--------	----------	---------	------	---------	-----	----------	--------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대단히 중요”

한우성 이사장 현지 동포간담회… “한인 100년사 편찬 동참할 것”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27일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과거를 잘 정리해야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한인회와 한글학교 교감 등 동포 1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인도네시아의 한인 동포 2만3천여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2박 3일 일정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한인회는 2020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에 맞춰 100년사 집필과 출판, 100주년 기념식, 한복 패션쇼 등 기념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동포재단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 역사가 시작된 것은 3·1운동 자금을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한인회와 한글학교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원한 장윤원 선생이 망명 생활을 하다 1920년 9월 20일 자카르타(바타비아)에 도착한 것을 기점으로 한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100주년 사업 총예산 17만5천 달러(2억 원) 가운데 30%는 동포사회 후원금, 30%는 한인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8천여만 원)를 동포재단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이사장은 “지난해 추진한 ‘프랑스 한인 100년사’ 편찬에 동포재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에도 재단이 진지하게 같이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동포재단은 분명한 파트너”라며 “최선을 다할 테니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컨센서스(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연말 위문품 전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연말을 맞아 전국 30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영훈 기획이사 와 직원들은 12월 18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안산 고향마을 등을 방문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생필품, 파스세트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동포들과 함께 거주 시설을 둘러보고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훈 기획이사는 “이번 방문과 위문품 전달이 영주귀국 동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고향마을 노인회 양윤희 회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영주



재외동포재단은 연말을 맞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 양윤희 회장, 네 번째는 오영훈 재단 기획이사.

귀국 동포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더 외롭고 쓸쓸한데 매년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주니 큰 힘이 된다”고 고마워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쌀과 생필품, 의류기기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한 사할린 동포들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1994년 한·일 정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돌아왔으며, 현재 서울과 인천, 안산, 부산 등 30여 개 지역에 살고 있다.



한국어 문화권 수립을 촉구한다

소 설가 현장원이 아프리카 세네갈에 갔을 때였다. 거기 선교사로 가 일하는 베로니카를 만났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가까운 바닷가였다. '노예의 집'이 있는 고레(Goree)섬이 건너다보이는 바닷가 언덕에 자리 잡은 식당은 정갈했다.

"세네갈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통하지요?" 현장원이 베로니카에게 물었다.

"동포가 300명 정도인데, 한글학교에는 동포 자녀들과 이곳 학생들 해서 30명 정도가 와요." 베로니카는 숫자를 예거하는 게 겸연쩍다는 듯이 조심해서 말했다.

"동포신문이나 잡지 그런 출판물도 나오나요?" 베로니카는 대답을 하지 않고 수평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베로니카는 손수건을 꺼내 눈자위를 닦았다. 현장원은 질문을 잘못 했다는 뉘우침이 컸다.

"문제는 말이지요, 출판물 만들 재정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하기는 그런 정도의 동포와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판물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이라면 그게 몇 푼 되는 돈이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멍클었다.

"여기 세네갈에 한국인이 살고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프리카에 한국어 문화권이 살아 있다는 뜻인데... 한국어의 장래를 위해 뭔가 해야겠네요." 현장원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다만 한국어가 어떻게 살아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자리일 뿐이었다. "한국어는 말이지요..." 현장원은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를 펴놓았다.

어느 지역에 한국 재외동포가 산다는 것은, 그곳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어로 된 출판물을 발간한다는 뜻이지요. 말로 소통하는 것은 형식요건이 느슨해서, 그 말이 오래 건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의 형태로 실행되는 출판물이 언어를 확정시켜 주어야 해요. 글로 수행되는 출판물을 통해서야 문화, 학술, 이념 등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말만 있고 글이 없는 지역의 문화가 쉽게 소멸하는 것은 언어적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글로 구현되는 언어문화는 해당 지역의 언어와 상호 교섭을 하면서 자생력을 획득하게 되지요. 그런 언어적 자생력이 한



우한용
소설가, 서울대 명예교수

국인의 정체성을 보증해주고요. 그러한 점에서 해외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 권역의 언어활동 가운데 문자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의 동포 신문, 동포 잡지, 동포 글쓰기 등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의 한국어가 명실공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금전적으로는 그다지 부담되는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게 탈이지요.

"세네갈에서 생활하는 데에서 언어적으로 어려움은 없어요?" 현장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곳 세네갈의 통용어가 프랑스어라서 프랑스어 공부하느라고 진땀을 빼지요." 프랑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였다.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이 한국어를 금방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의 언어정체성 덕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원은 재외동포들이 김현승 시인 말대로 '겸허한 모국어'로 기도하고, 한국어로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모았다.

한국어를 매개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문화권 형성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였다. **창**



‘2020년도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2020년도 재외동포단체가 추진하는 ‘한인회관 등 건립사업’ 지원을 위한 ‘2020년도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20년 1월 22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업

-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인회관 등의 건립, 매입, 개·보수, 증·개축 등의 사업
 - 재외동포사회 자조적 노력으로 사업 총 소요비용의 50% 이상이 확보된 사업으로, 2020년 내 완료 예정인 사업 위주 신청 요망

나. 일정(한국시간 기준)

- 동포단체 신청 : 2019년 12월 12일(목) ~ 2020년 1월 22일(수)(6주)
- 공관 검토 : 2020년 1월 23일(목) ~ 2020년 2월 5일(수)(2주)

다. 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준비, 온라인(www.korean.net)을 통해 신청서 작성·제출
 - ※ 상세 내용 - 2020년 한인회관 건립사업 지원신청 가이드라인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공지사항 참조)

라. 요청사항

-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기한 내 신청서 작성·제출
 - 반드시 신청기간 이내 수정·보완 완료
 - 온라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후 공관에 별도 제출
 - 불입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별도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 단체별·사업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비하여 첨부

마. 문의

-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를 위한 콜센터 운영
 - 전화 : +82-2-3415-0187, +82+64-786-0297 (한국시간 09:00~18:00)
 - 이메일 : pms01@okf.or.kr
- 사업 담당자(동포단체지원부 이희경 차장)
 - 전화 : +82-2-3415-0144
 - 이메일 : hkleee@okf.or.kr

재외동포 이해제고와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새해 1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 본사와 제주 ICC에게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 초청 대상은 초·중·고 교사 25명, 외부 유관기관 인사 10여 명 등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인식제고를 위한 교과서 집필기준과 방향 연구, 각급 학교 교육과정과 재외동포 연계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분과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 브랜드 남윤수(렛츠북)

재미동포인 저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이민자인 유대인의 창의성과 힘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한 책을 펴냈다. 미국 이민생활과 브랜드 편향성에 대해 분석하고 유대인 브랜드가 어떻게 세계화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브랜드부터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브랜드 용품까지 유대인의 브랜드임을 확인하며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정체성과 디아스포라로 퍼져있는 브랜드의 창의력도 살펴보자.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 독립운동가의 길을 가다 박환(선인)

한국독립운동사와 관련하여 최대 근거지였던 블라디보스토크는 지리적 위치 및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된 곳이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며, 타지에서 한반도 정세를 고민하며 독립운동의 연대

를 이어간 곳이기도 하다. 하바롭스크는 아무르 강이 흐르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곳에서 무장 독립투쟁 등을 위해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타지에서 노력했던 선대 동포들의 흔적을 찾아보고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NewYork to Seoul 뉴욕 화가 천세련 천세련(S-CASA)

이 책의 저자는 재미동포 화가로 작품 전시와 한국 전통화 시연을 하며 겪었던 경험을 에세이로 발간하였다. 한국수필회원과 재미한인문인협회 수필가로 활동했으며 다졌던 글쓰기 내공으로 화가로서의 생활과 경험들을 엮었다. 뉴욕과 전 세계를 오가며 펼쳤던 작가의 예술관을 만나보자.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안넷으로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안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안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5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